

Korean A: literature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medio – Prueba 1

Friday 4 November 2016 (afternoon)
Vendredi 4 novembre 2016 (après-midi)
Viernes 4 de noviembre de 2016 (tarde)

1 hour 30 minutes / 1 heure 30 minutes / 1 hora 30 minuto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guided literary analysis on one passage only. In your answer you must address both of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e analyse littéraire dirigée d'un seul des passages. Les deux questions d'orientation fournies doivent être traitées dans votre réponse.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de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análisis literario guiado sobre un solo pasaje. Debe abordar las dos preguntas de orientación en su respuesta.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하나의 제시문을 골라 문학적으로 분석하시오. 분석에는 제시된 질문의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나의 산수

화성인들은 좋겠다. 그해 여름은 너무 무더워, 나는 늘 그런 상념에 젖고는 했다. 상고(商高)의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길어서, 그런 상념이라도 빠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긴긴 여름, 게다가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오후엔 주유소에서,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있으나마나 한 여자애들이 일터마다 있긴 했지만, 있으나마나 했으므로

5 지루하긴 마찬가지였다. 비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있으나마나인 별들을 지나, 지구까지 오던 태양광선이 나 같은 기분이었을까? 덥지도 않고, 멀고먼, 화성.

일터를 돌아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게 마련인데, 모쪼록 그해의 여름이 그러했던 생각이다. 주유소에선 시간당 천오백원을, 편의점에선 천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늘 불만이 가득했다. 그게 그러니까, 시작 때와 달리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편의점의

10 사장은 이러면서 세상을 배운다 - 라고 말했지만, 이천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나? 뭐야, 그럼 당신 자식에겐 왜 팍팍 주는데? 를 떠나서 - 못해도 이천원 정도의 일은 하고 있다고 나는 늘 생각했다. 글썄 천원이라니. 덥기만 덥고, 짜디짤, 지구.

코치 형이 가게를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의 새벽이었다. 어떠냐? 좋아요. 편의점의 알바 역시 코치 형의 소개로 얻은 것이므로, 좋다고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었다. 지역의

15 알바 정보를 한 손에 쥐었다고 할까, 아무튼 그래서 후배들에게 일자릴 소개하고 요모조모 코치하길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이 얼마나 요긴한가, 나는 카프리콘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웃으며 말은 했지만 알고나 드세요, 제 인생의 이십오 분이랍니다. 시계를 쳐다보며 나는 생각했다. (중략)

그건 그렇고, 너 푸시업 잘하나? 푸시업이라뇨? 팔굽혀펴기 말이다. 무조건

20 잘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그때도 이미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페이지 세. 시간당 삼천원인데... 대신 몸이 좀 힘들어. 삼천원이요? 앞뒤 썰 것도 없이, 시간당 삼천원이란 말에 귀가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내 주변에 그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제의를 받은 사실만으로도, 갑자기 확, 고도산업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한 느낌이었다. 종구말구요. 비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25 지구를 지나, 비로소 화성에 다다른 태양광선이 바로 나 같은 기분일까? 있으나마나에 받으나마나, 지구여 안녕.

그런 이유로, 나는 푸시맨이 되었다. 좋은 점은 전철을 공짜로 탄다는 것, 팔힘이 세진다는 것, 게다가 다른 알바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는 거야. 이를테면 여기 일을 마친 다음 슬슬 역에 나가 ‘한 딱가리’ 하면 그만이란 거지. 깔끔해. 공사 소속이니

30 지불 확실하지, 운동이 되니 밥맛도 좋아, 그러니 잠 잘 자고 주유소 일도 계속 하고... 코치 형의 코치가 쉬지 않고 이어진 것도 까닭은 까닭이었지만 - 다른 무엇보다 이유는 삼천 원이었다. 요는 짧고 굵게 번다, 이거군요. 그런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까 모르겠군. 코치 형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확실히 그런 식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 나의 산수(算數)다. 웃건 말건, 세상엔 그런 산수를 하며 살아야

35 하는 사람이 있다, 있게 마련이다.

박민규 <카스테라> (2005)

- (ㄱ) 이 글의 소재목은 주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며 청년 화자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 (ㄴ) 이 글에서 화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어조는 어떠한고 그것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2.

서울 지하철에서 놀라다

1
열차가 도착한 것 같아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스크린도어란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
민망하여 별로 놀라지 않은 척 주위를 무마했다
5 스크린도어에, 옛날처럼 시 *주련(柱聯)이 있었다
문 맞았다

2
전철 안에 의사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모두 귀에 청진기를 끼고 있었다
10 위장을 눌러보고 갈빗대를 두드려보고
눈동자를 들여다보던 옛 의술을 접고
가운을 입지 않은 젊은 의사들은
손가락 두개로 스마트하게
전과 그물을 기우며
15 세상을 진찰 진단하고 있었다
수평의 깊이를 넓히고 있었다

함민복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 (2013)

* 주련: 기둥이나 벽 따위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글귀.

(ㄱ)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시인의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지 검토, 분석하시오.

(ㄴ) 운율을 비롯한 이 시의 구조적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시오.
